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68-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별난리서치: 더치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 02. 23.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더치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 결과

- 식당이나 카페 계산대 앞에서 ‘나눠서 결제할게요.’ 혹은 ‘내가 먼저 결제 할테니 나중에 보내줘.’ 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더치페이(Dutch Pay)’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더치페이’는 네덜란드(네덜란드인)를 의미하는 ‘더치(Dutch)’와 ‘대접/한턱(Treat)’의 의미가 결합한 ‘더치 트리트(Dutch Treat)’에서 유래하였다. 영국과의 식민지 경쟁 이후 영국인이 네덜란드(네덜란드인)를 부정적으로 칭하면서 대접이 아닌, 각자 계산한다는 의미의 ‘더치페이(Dutch Pay)’로 변모했다.
-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 누군가와 의식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여론 속의 여론>팀은 22년 1월 21일 ~ 2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음식값은 성별(83%), 연령(64%), 서열 혹은 직급(54%)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경제력이 더 나은 사람(52%)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 친구(51%) 혹은 직장동료(50%)와 자주 더치페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애인(17%), 가족(8%), 친척(6%) 순이었다.
- 더치페이는 비용을 분할 계산하는 것(음식값의 총합을 사람 수대로(1/n) 나눠서 계산(88%), 자기가 먹은 음식값은 자기가 계산(85%))이라는 인식이 80%를 훌쩍 넘었다.
- 더치페이는 ‘깔끔하고 합리적(89%)’ 이고, ‘간편하다(86%)’ 는 긍정 인식이 높았다. ‘삭막하고 정이 없는 느낌(32%)’, ‘구두쇠 혹은 가난하다는 인상을 준다(20%)’ 는 부정 인식은 2-30%대에 그쳤다.
- ‘혼잡한 시간대에는 업주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46%)’ 는 입장과 ‘언제든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해도 된다(47%)’ 는 입장이 팽팽했다.

1

식사비용 부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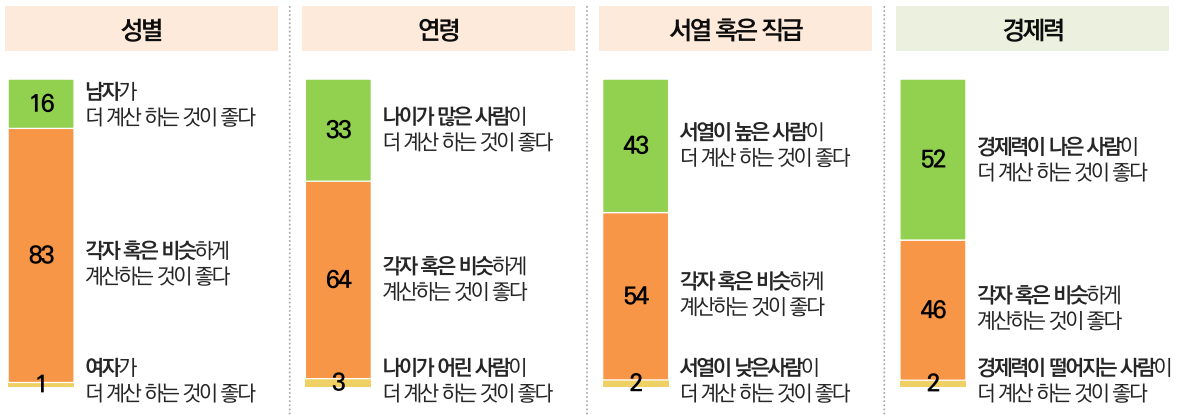
성별(83%), 연령(64%), 서열 혹은 직급(54%)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지불해야 한다
경제력이 더 나은 사람(52%)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성별이나 연령대, 직급, 경제력 등이 서로 다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누가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력(46%)을 제외하고는 과반 이상이 성별(83%), 연령(64%), 서열 혹은 직급(54%)과 상관없이 각자 혹은 비슷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비슷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력이 더 나은 사람(52%)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식사 비용을 더 부담했으면 하는 인식이 성, 연령 조건에 비해 높은 것이다.

(단위 : %)

성별(83%), 연령(64%), 서열·직급(54%)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경제력이 더 나은 사람(52%)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질문 : 다른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다음 중 누가 식사 후 음식값을 더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01.21. ~ 01.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더치페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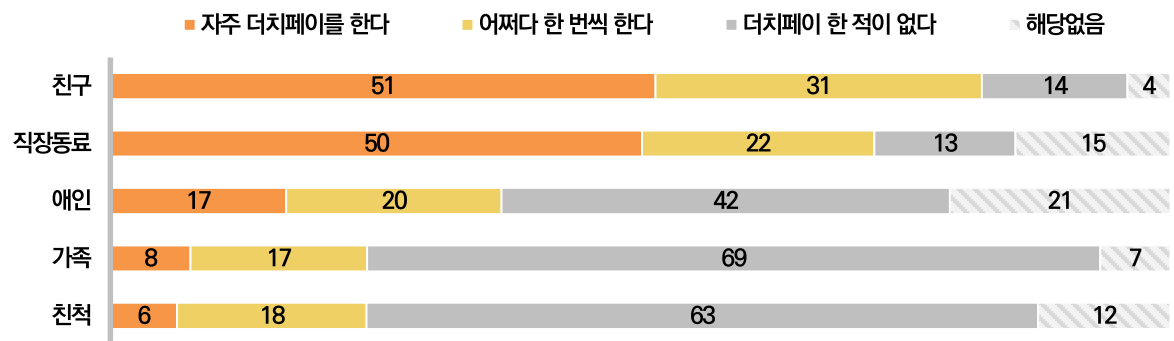
2명 중 1명, 친구(51%) 혹은 직장동료(50%)와 더치페이를 자주 한다고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 혹은 애인과 더치페이 자주 한다는 응답 높아

앞서 성, 연령, 서열 혹은 직급과 상관없이 식사비용을 비슷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더치페이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와 얼마나 자주 더치페이를 하고 있을까?

응답자 절반은 평소 친구(51%) 혹은 직장동료(50%)와 더치페이를 자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애인(17%)이나 가족(8%), 친척(6%)과의 더치페이 경험은 10% 내외였다. 가족, 애인과 같이 긴밀한 관계에서는 더치페이 경험이 현저히 적은 것이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 혹은 애인과 더치페이를 자주 했다는 응답이 높아 이들에게 더치페이 문화가 더욱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2명 중 1명, 친구(51%) 혹은 직장동료(50%)와 더치페이 자주 한다고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 혹은 애인과 더치페이 자주 한다는 응답 높아



구분	사례수 (명)	친구	직장동료	애인	가족	친척	
전체	(1,000)	82	72	37	24	24	
연령	18-29세	(173)	90	53	39	8	10
	30-39세	(152)	63	65	32	14	6
	40-49세	(184)	51	58	17	8	6
	50-59세	(195)	36	47	4	5	5
	60세 이상	(296)	34	38	4	6	6

질문: 평소 다음 사람들과 식사나 간단한 음료 및 간식을 먹을 때, 더치페이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비고: 표는 '더치페이를 자주 한다'는 응답 제시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01.21. ~ 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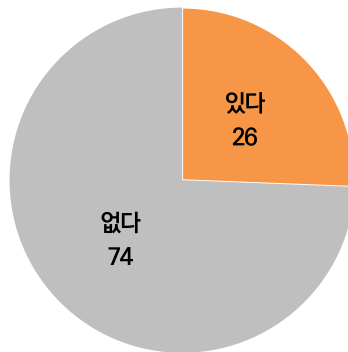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6명(61%), 배달비도 더치페이 했다고 답해

배달음식 비용을 더치페이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256명) 였는데 이들에게 배달비 지불 방식을 물었다. 10명 중 6명(61%)은 배달비도 더치페이 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배달 주문을 한 사람(28%), 배달 음식을 받은 사람(8%) 순으로 배달비를 지불했다고 답했다.

(단위 : %)

배달음식 비용 더치페이 '경험 있다' 26%, '경험 없다'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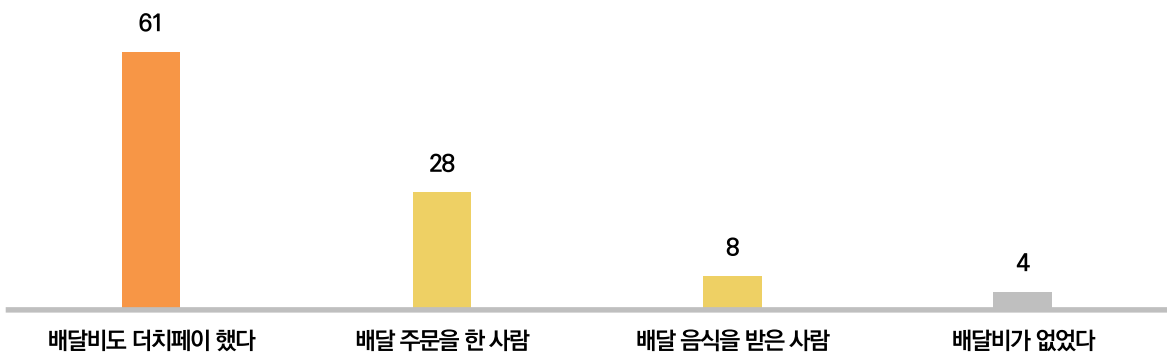


질문 : 귀하는 배달음식을 시킨 후, 더치페이로 음식값을 지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01.21. ~ 01.24.

10명 중 6명(61%), 배달비도 더치페이 했다
다음으로 배달 주문 한 사람(28%) > 배달 음식 받은 사람(8%) 순



질문 : 배달비는 주로 누가 지불하십니까?

응답자 수 : 배달음식 비용 더치페이 경험 있는 응답자 256명

조사기간 : 2022.01.21. ~ 01.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더치페이 범주

식사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더치페이 2030은 번갈아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더치페이라는 인식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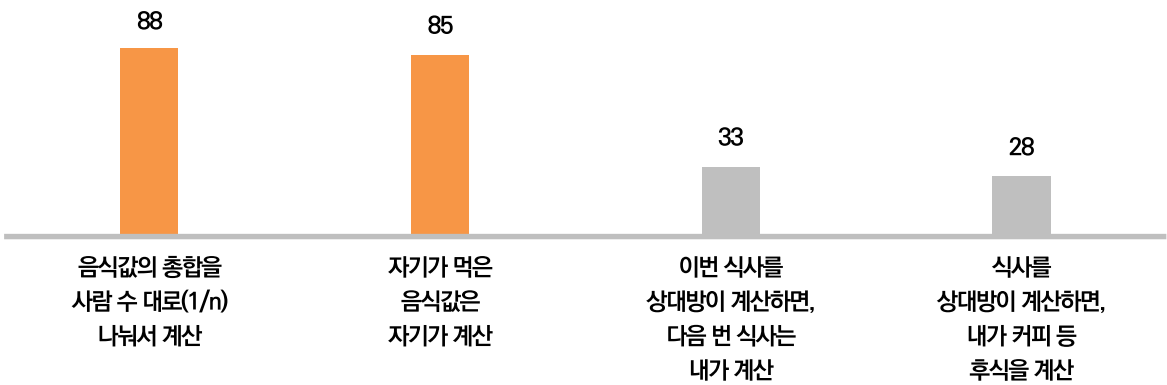
현재 더치페이는 자신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재화(음식, 물건 등)나 서비스를 취한 후, 각자 계산하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더치페이라고 보고 있을까?

과반 이상이 '음식값의 총합을 사람 수대로(1/n) 나눠서 계산(88%)' 하거나, '자기가 먹은 음식값은 자기가 계산(85%)' 하는 방식을 더치페이라고 보고 있었다. 반면, '이번 식사를 상대방이 계산하면, 다음 번 식사는 내가 계산(33%)' 하거나 '식사를 상대방이 계산하면, 내가 커피 등 후식을 계산(28%)' 하는 방식은 더치페이라는 응답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더치페이(Dutch Pay)' 어원 그대로 각자 계산하는 방식을 더치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20대와 30대는 정확히 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횟수로 번갈아가면서 지불하는 방식도 더치페이라는 응답이 40%를 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치페이 범주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 비용 분할) 더치페이는 '식사 비용을 나눠서(88%)' 혹은 '각자(85%)' 계산하는 것
(2. 동일 횟수) 2030은 '번갈아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더치페이라는 인식이 높은 편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1/n) 계산	자기가 먹은 음식값은 자기가 계산	번갈아가며 식사 계산	식사 계산과 후식 계산 분담	
전체	(1,000)	88	85	33	28	
연령	18-29세	(173)	89	78	44	35
	30-39세	(152)	89	88	47	45
	40-49세	(184)	88	88	25	24
	50-59세	(195)	87	86	28	23
	60세 이상	(296)	88	84	27	21

질문 : 다음 각각의 계산방식이 '더치페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비교 : '더치페이 이다' 응답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01.21. ~ 01.24.

4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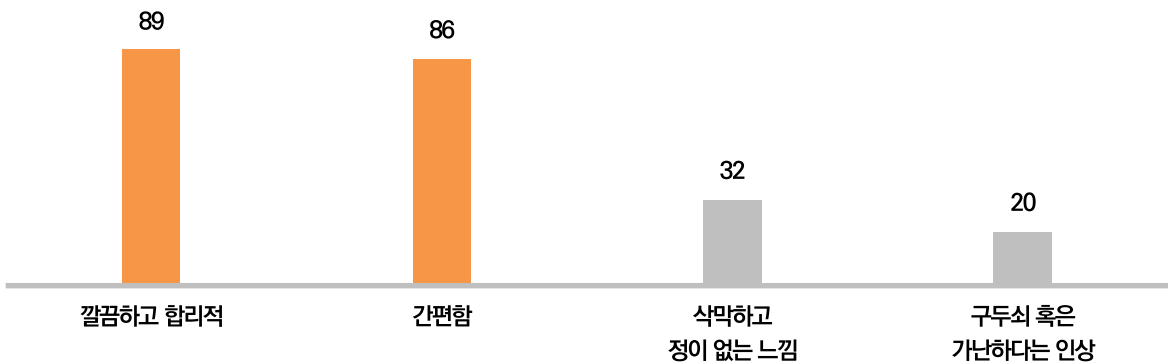
10명 중 8명, 더치페이는 깔끔·합리적·간편한 지불 방식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을 긍·부정 각각 2문항씩 물었다. ‘깔끔하고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고, ‘간편하다(8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삭막하고 정이 없는 느낌(32%)’, ‘구두쇠 혹은 가난하다는 인상을 준다(20%)’와 같이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2~30%만이 그렇다고 답해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연령에서 더치페이 긍정 인식이 최소 79%로 매우 높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더치페이 경험이 많았고 긍정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더치페이에 대한 긍정 인식, 80%대를 훌쩍 넘어
 깔끔하고 합리적(89%) > 간편함(86%) > 삭막하고 정이 없음(32%), 가난하다는 인상(20%) 순



구분	사례수 (명)	깔끔하고 합리적	간편함	삭막하고 정이 없는 느낌	구두쇠 혹은 가난하다는 인상	
전체	(1,000)	89	86	32	20	
연령	18~29세	(173)	95	89	26	18
	30~39세	(152)	95	90	30	24
	40~49세	(184)	93	90	32	16
	50~59세	(195)	88	85	34	22
	60세 이상	(296)	82	79	36	22

질문: 더치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비고: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01.21. ~ 01.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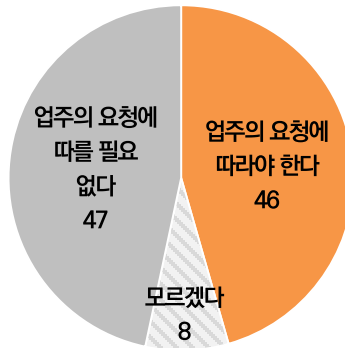
혼잡한 시간대 비용 지불 방식에 의견 차 팽팽해 업주의 요청에 따라야(46%) vs 지불 방식은 개인의 자유(47%)

일부 업장에서 혼잡한 시간대에 일괄 결제를 요청하면서, 업주의 요청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기도 한다. 조사 결과, ‘혼잡한 시간대에는 업주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46%)’ 는 입장과 ‘언제든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해도 된다(47%)’ 는 입장이 팽팽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치페이 빈도가 잦고, 긍정 인식이 높았음에도 혼잡한 시간대에는 업장 내 더치페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선 결제한 후 따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부담하는 방식 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혼잡한 시간대, 업주의 요청에 따라야(46%) vs 지불 방식은 개인의 자유(47%)
연령이 낮을수록 업주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답해



구분	사례수 (명)	계산 시간이 오래 걸려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 혼잡한 시간대에는 업주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으니, 업주의 요청에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6	47	8	100	
연령	18~29세	(173)	57	33	10	100
	30~39세	(152)	44	48	8	100
	40~49세	(184)	48	46	6	100
	50~59세	(195)	46	46	8	100
	60세 이상	(296)	38	55	7	100

질문 : 혼잡한 시간대에는 되도록 더치페이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01.21. ~ 01.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더치페이가 일상화되면서 삭막한 인간관계를 조장하기 보다는, 깔끔하고 간편한 지불 방식을 통해 부담 없는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조사 결과, 더치페이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에서 더치페이 경험이 많고, 더치페이 범주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계산 방식이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스며든 만큼 앞으로도 여러 범주의 더치페이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12월 기준 전국 7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757명, 조사참여 1,242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4.8%, 참여대비 80.5%)
조사일시	• 2022년 1월 21일 ~ 1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 Research

